민족문화연구 제112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112호에는 특집 논문 3편을 포함하여 총 10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실렸다. 일반 논문은 역사학 4편, 국어학 1편, 국어 정보학 2편 등 총 7편이 게재되었다. 이번 호에는 '색채 은유의 통시적 탐색'을 주제로 한 4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집의 말'에서 별도로 소개하고 여기에서는 일반 논문과 해제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정성권은 "고고학과 미술사를 통해 본 천불천탑의 공간, 화순 운주사의 건립 세력"에서 화순 운주사의 건립 주체와 문화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문헌 기록과 석조 미술의 양식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기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도선과 혜명은 17세기경 '재해석'된 존재이며 운주사의 창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운주사의 조성은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분석하면서 시도되었는데, 1125년 요나라의 멸망을 전후하여 고려로 유입된 거란 유민들이 운주사의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황을 논증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정동훈은 "공모한 조작, 1260년 원종-쿠빌라이 만남 서사의 재구성"에서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였다. 『高麗史』에서 원종이 자발적으로 쿠빌라이를 찾아갔으며, 두 사람의 만남이 시종일관 우호적이었다는 서사를 당시의 외교문서를 통해 재검토하였다. 특히 원종이 쿠빌라이 진영에 합류했던 당시에 몽골 측에서는 고려 측에 대한 강경책과 온건책이 상존했으며, 양측의 만남이 우호적이었다는 공식 사서 상의 서술은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한 30여 년 후에 기록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후대의 편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구성을 포착해 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혜지는 "고종 초기 왕실 가례의 절차와 성격 —병인년[1866] 『왕비가례등록』을 중심으로—"에서 1866년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 당시 편찬된 예조 편과 사옹원 편 『왕비가례등록』의 편찬과 구성을 분석함은 물론, 왕비 가례의 절차와 특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1866년의 가례는 고종 초기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의례 절차 자체는 조선

왕실 가례의 전통적인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왕비가례등록』을 통해 정치적 특수성과 의례적 연속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전정민은 “일본 제국의회 회의록 속 한방의학과 조선 의생(醫生) —1890년대 일본과 1910-1920년대 조선을 중심으로—”에서 일본 제국의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전통의학과 식민지 조선의 의생(醫生)에 대한 의회 구성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1890년대 일본에서 한방의학의 존속이 과학적 기초 결여를 근거로 소멸해나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는 「의생규칙」이라는 제도적 형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식민지에서의 재정적 한계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인데, 의생은 언젠가 사라져야 할 존재이지만 역설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모순적 지위에 입각하여 차별적으로 제도에 편입되고 있었다는 점을 통찰하고 있다.

최경봉은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과 그 문체사적 의미”에서 근대 문체사의 전환기에 신채호의 문체적 선택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면서, 신채호의 어문관, 이중적 문어 상황에 대응하는 문제의식, 이중 문어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일 문어 구상 등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채호는 한문의 해체와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끊임없이 현실의 요구를 의식하며 문체적 모색과 선택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신채호를 문체사적 관점에서 조명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신채호를 통해 근대 국어 문체의 전환 동인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장정선은 “부동산 뉴스의 미디어 프레이밍 분석 연구 —‘정보’에서 ‘평가’로의 전환과 따옴표 저널리즘의 부상(1990-2025)—”에서 지난 36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 뉴스가 어떠한 미디어 프레임으로 구성·변화해 왔으며, 직접인용이라는 보도 형식이 프레임 구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대규모 뉴스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지난 36년간 부동산 보도의 중심축은 ‘사실 전달’에서 ‘평가적 동원’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보도의 양이 아니라 질적 구성 자체가 재편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발견은 부동산 보도가 사회적 격차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돕기보다,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 심리를 증폭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강산・송상헌은 “KoPolitical-LLM: 한국 정치 연구를 위한 거대언어모델 탐구”에서 거대언어모델을 한국 정치 연구에 적용하였다. KoP-Stance와 KoPAA을 활용하여 정치적 판단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인데, 한국 정치 데이터를 대상으로 거대언어모델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제시한 것은 국어 전산정치학의 연구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 한국어 전산정치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적 프레임워크로서 KoPolitical-LLM을 제시하여 한국 정치 연구에 거대언어모델을 접목하려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한국어 전산정치학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하겠다.

마지막 글은 심경호의 “『新羅國石南山故國師碑銘後記』 해제”이다. 심경호는 탁본인 『新羅國石南山故國師碑銘後記』이 신라 말 고려 초의 선사인 낭공대사(朗空大師) 행적(行寂, 832-916)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라 정의하는 한편, 원문의 내용과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더불어 탁본과 관련된 금석문을 정리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확장하였다.

이처럼 『민족문화연구』 제112호에 수록된 성과들은 기존의 통념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국학 연구의 신선한 견해와 심도 있는 논점들이 학계 연구자들에게 널리 읽혀, 후속 연구를 위한 토양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